## '섬의 날'첫 기념식 어디서 열릴까

목포ㆍ신안-여수 공모…행안부 이달 결정 주목 섬의 날 주도·개최 의지 vs 엑스포 인프라 경합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첫 기념식을 갖는 섬의 날은 전

남도가 정부에 제안해 제정된 국가 기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전남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목포 · 신안과 여수가 최종 개최지 경합 을 벌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개최지를 공모한 결과, 여수시와 공동 개최키로 한 목포시 · 신안군이 신청했다.

목포 · 신안은 기념식은 목포문화예 술회관, 부대행사는 삼학도 일원을, 여 수시는 엑스포장을 각각 제시했다.

서남해 섬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 지인 목포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은 바다와 섬을 공 통분모로 기념행사 공동 유치를 위해 의기투합 했다.

현재 목포ㆍ신안은 섬의 날 기념식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강점으로 꼽 히고 있고, 여수는 여수엑스포장 인프 라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전남도관계자는 "섬의날제정을주 도했던 목포시와 신안군은 기념식 개 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수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 만큼 기반시설 이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 주 중 두 지역에 대한 실사를 벌인 뒤 이달 중 개최지를 최종 념일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섬의 8일을섬의날로정했다.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 기 위한 섬의 날 제정을 전국시도지 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했었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여론 했다. 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법

인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 매년 8월

이후 지난 달 섬의 날 제정 기여도, 지역적 상징성, 국제 녹색 섬 포럼 등 관련 행사 개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념식 첫 개최지로 전남을 확정 /정근산 기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이사업체 관계자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안부는 이사중 옮겨갈 짐을 나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1948년 내무

부·총무처로 출범한 행정안전부는 70여년 만에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 제 정기 브리핑

#### "총선까지 옛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것"

박지원, 바른미래당과 재결합 언급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7일 "내 년 총선까지는 우리가 옛날 국민의당 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옛 국민의당 출신 간의 재결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해 "보수 세력이 뭉쳐가기 때문에 우리 진보개혁 세력도 어쩔 수 없이 뭉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 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진보개혁 세력 연대의 계 기로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꼽았

그는 "현재 PK(부산·경남)의 문재 인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고 노회찬 전 의원



평화당과의 통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손 대표가 표방 하는 중도개혁이나 진보, 중도로 넘어 오지 않는다"며 "한국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천일염 수출 확대 지원 희망업체 모집

22일까지 접수…2곳 선정

전남도가 도내 천일염의 해외 마케 팅 확대를 위해 업체 2곳을 선정, 수출 확대에 나선다.

전남도는 천일염 가격 하락과 소비 다.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까지 3년간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4개 수출 기업에 2억원(기업 당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곳 을 더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기업은 전남 소재 천 일염 생산·수출업체로 해외시장 진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천일염과 천일염 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이다. 지원 내용 은용기 · 포장 등 수출상품 개발비용과 박람회 참가·바이어 초청 비용 등이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에서 접수한다. 전남도는 수출 실적, 시설 · 품질 · 규

격·친환경 등 인증실적, 해외시장 개 척 실적 등을 1차 서면 심사한다.

2차 식품위생과 사업수행 능력을 현 장 확인해 종합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고득점순으로 2개 기업을 선정한다.

/정근산 기자

### 광산업 육성 국비 280억 확보…재도약 탄력

광융합기술종합 발전계획 완성 기대

광주시가 올해 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광융합산업으 로의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 다고 7일 밝혔다.

비는 28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17% 증가했다.

20억원▲광융합산업플랫폼공동활용 으로기대된다. 사업화 지원 15억원 등 7개 사업 83억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 화 지원'은 지난해 9월 21일 시행된 '광융합기술지원법'에 따라 산업통 올해 광산업 육성을 위해 확보한 국 상자원부의 광융합산업 육성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75억원▲전력산업광융복합기술표준 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광주 광산

2019년 신규사업으로는 ▲지능정보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광융합기술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재도약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4차 산 네트워크용 광통신부품 상용화 개발 종합 발전계획이 완성되면 광산업 기 31억원 ▲수요자 연계형 LED조명 글 업혁명을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 개발 25억원 ▲광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술·인력·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질 것 로벌 사업화 기반구축 28억원 등 6개 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사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자 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과 융합돼 인공지능의 핵심부품소재 기술인 광산 업의 재도약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화 및 인증기반 구축 32억원 ▲광기반 업의 산업 간 융합과 기술혁신을 통해 사업 197억원이다.

'인공지능(AI)중심 광학기술 창업 시는 이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시대

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 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기존 광산업 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

이치선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 "정치권과 함께 노력한 결과 광산업 국 비를 전년보다 200% 이상 확보하는 성

/황애란 기자

#### 전남 귀농・귀촌・귀어 블로거단 운영

전남도는 7일 "귀농과 귀촌의 공감 대 확산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36명 의 귀농어촌인 블로거를 선정, 블로거 단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블로거단은 귀농과 귀촌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 정보가 어, 귀촌 소식을 알린다.

보를 제공하는 곳이 드문 데다 그나마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관련

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블로거단에 선정되면 귀농과 귀촌・ 귀어 누리집 게시는 물론 예비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사로 추천된다.

대한 자신만의 콘텐츠를 담아 블로그 귀농과 귀어 등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 를 운영하면서 전남 곳곳의 귀농, 귀 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 는 기대했다.

귀농과 귀촌 · 귀어에 대한 현장성 정 전남도는 자체 누리집과 귀농 · 귀촌 있는 정보도 귀농 귀촌인에게 큰 도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근산기자

#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골든타워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대지지분 78평, **건물210평(실147평)**
- 2012년 준공, 주차편리
- 6층중 4층 전체,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
- 주위에 업무용/상업용/근린생활시설등 혼재
- 감정/시세 13억
- 급매 8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8억

문의. 010-3605-5000